부품산업 발전 “특혜” 필요하다!

전경련, 병역특례 확대에 R&D 세제지원 강화 요구 ... 중국 추격도

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요원 배정 확대, 연구개발(R&D)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, 기술신보기금의 확충, 부품기업에 대한 R&D 지원제도 개선 등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월8일 발표했다.

전경련은 부품소재특별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유망 부품기업 현장 방문조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<부품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> 건의서에서 부품산업은 대부분 자금력이 취약한 메이커로 구성돼 있고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.

R&D 및 기술인력 조세지원제도 일몰제 적용사례

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	적용시한	관련 법규
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	2000.12폐지	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
연구보조비/연구개발 활동비 비과세제도	2006.12.31	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
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	2005.12.31	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
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	2006.12.31	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
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	“	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	“	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
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	“	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
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	“	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

또 정부가 2005년 1월 <부품소재 발전전략>을 수립해 중핵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등 2010년 핵심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고, 한-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는 등 부품산업의 대내외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.

<화학저널 2005/12/09>